

제14회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워크숍

# 오동도서 봄의 기운 만끽...“화합 다지는 소중한 시간”

### 원우 80명 참석... 관광·건축·원우의 밤 등 친교 시간 허승업 원우회장 “원우들간 배려·화합의 장 됐으면”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워크숍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허승업 원우회장을 비롯한 원우들과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지 견학, 요트 투어, 원우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원우들은 9일 오후 여수 오동도를 찾아 봄의 기운을 만끽했다.

동백나무와 후박나무·팬나루·취풍나무 등 희귀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오동도에서 원우들은 산책을 하고 동백열차를 타는 등 일련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요트를 타고 여수의 전경과 바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바다 위로 스치는 봄바람과 함께 요트에 승선한 원우들은 돌산항을 출발 1시간 남짓 미항 여수 곳곳의 경치를 만끽했다.

이후 인근 호텔로 옮겨 원우의 밤 행사를 가졌다.

원우의 밤에서는 팀·개인별 장기자랑을 통해 각자 기량을 뽐냈다.

특히 일부 원우들은 가면무도회를 방불케하는 의상 준비는 물론 화려한 춤과 노래 솜씨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참석인원과 장기자랑을 합산 평가해 치러진 팀별 대항에서는 3팀이 대상, 2팀이 최우수상을, 1팀과 4팀이 우수상을 차지해 시상금과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개인상에서는 화려한 율동을 선보인 2팀 댄스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원우회는 푸짐한 경품을 준비해 훈훈한 친교의 장으로 이어졌다.

허승업 원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워크숍이 허승업 원우회장과 원우들,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열렸다.

오래 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워크숍을 통해 원우들간 배려와 화합의 장이 되자”고 강조했다.

워크숍에 격려자 방문한 양진석 광

남일보 회장은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것에 거듭 감사하다”며 “원우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친목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우들은 이튿날 예술랜드와 순천 수석세계박람회장 등을 둘러보면서 5월의 남도를 즐겼다.

한편,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는 오는 21일 김경일 아주대 교수를 초청, 특강을 듣는 등 총 16강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 looks@

## 해남공룡대축제로서 로봇댄스 이동과학관 ‘주목’

### 광주과학관, 7300명 참여 체험전·태양관측 등 선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가족의 달을 맞아 최근 해남공룡대축제 현장에서 운영한 이동과학관 프로그램에 약 73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축제와 국립과학관의 전문 과학콘텐츠를 결합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축제 기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이동과학관 차량을 활용한 체험형 과학전시, 역동적인 로봇댄스 공연, 천체망원경의 원리를 배우고 태양 흑점을 직접 관측하는 ‘루체리움 스타카’ 천문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이동과학관 참여는 과학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보편적 과학복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최근 해남공룡대축제 현장에서 운영한 이동과학관 프로그램에 약 73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덴소 로봇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동과학관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과학문화 수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문기현 연구원은 “이동과학관은 국

민 누구나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향후에도 호남권 거

점 과학관으로서 ‘스타카’와 ‘루체리움 사인스 스킵’ 등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문화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과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학교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 광주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사서교사·사서 200여명 참여...독서교육 우수사례 등 공유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및 사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학교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독서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수에서는 일곡중학교 김지영 사서교사가 ‘지속가능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단독수업, 토론부, 독서부 등 분야별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영광고등학교 장호경 사서교사는 생태환경과 AI 인문학 등 시대적 주제를 독서교육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AI 시대에 독서는 창의적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창의성을 기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us@

## 목포유달초 ‘5월 감사의 달’ 따뜻한 등굣길 행사

### 전국 50개 교육기관 후원 아침 식사·카네이션 증정

목포유달초등학교는 최근 영어교육 플랫폼 소지니아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협력해 전교생 41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굿모닝 소지니아스 아침머교 프로젝트: Launch Your Dreams’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프로젝트는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아이들에게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담아 소지니아스 플랫폼에 소속된 전국의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 50여곳의 회원사가 대거 후원사로 동참했다.

프로젝트에 동참한 후원사는 컴페니언 잉글리시, 링키움 한솔 솔파크, 해남영어, 리딩영유어, 이엘영어전문학원, 리치하이어잉글리시, 리드스피어, 조이스픽영어교습소를 비롯해 와이즈잉글리시학원, 빌리언카드, 솔아영어교습소, 왕글리시, 그릿잉글리시, 엔클랜스잉글리시, 그리티영어학원, 플드에이잉글리시, 사인영어교습소, 굿쌤영어교습소, 라인잉글리시,



목포유달초등학교는 최근 영어교육 플랫폼 소지니아스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협력해 ‘굿모닝 소지니아스 아침머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트윅클유 영어, 영어는애니쌤, 헤이잉글리시, 김포리딩숲, 브레인어학원, 하이제니잉글리시, 하이영어, 잘하는초등영어, 위드제시, 행복숨에듀센터, 씨니영어, 올리브영어, 오피미디어키즈, 령쌤영어, 그

로우잉글리시, 황은영영어, 어쌤블잉글리시, 큐스클래스영어학원, 스테디영어독서클럽, 다함잉글리시, 백해민, 김명민, 정승안 등이다.

목포유달초에서 이뤄진 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총 3개의 다채로운 장면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문에서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이 등교하는 아이들과 반갑게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이후 학교 정문에 배치된 밥차에서 아이들이 선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치킨마요덮밥, 튀리스, 신선한 과일 등 정성껏 준비된 한 상을 제공해 유달초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 시간을 즐겼다.

이후 아이들이 직접 카네이션 바구니 선물을 준비하고 감사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목포유달초는 이러한 민간 기관과의 긍정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행사를 이끈 강소진 소지니아스 대표는 “바다와 산이 맞닿은 유달산 아래, 작지만 꿈 많은 41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아침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면서 “후원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세아문고전남도지부는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시·군문고회장 및 회원 30여명과 함께 ‘2026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하나로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 세아문고전남도지부, 문학기행 전개

하동 박경리 문학관 등 탐방

세아문고전남도지부는 최근 시·군문고회장 및 회원 30여명과 함께 ‘2026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하나로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문학기행은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박경리 문학관과 드라마 ‘토지’ 세트장인 최참판대를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전통문

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학과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시·군문고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백영자 문고회장은 “이번 문학기행을 통해 참가자들이 문학과 역사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